

2025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 공연-창작준비 】 심의평

2025년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공연-창작준비 부문에는 총 28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류심사를 통해 인터뷰 심의 대상 18건을 결정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최종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제시된 심의기준에 따라 연극, 음악, 무용, 공연기획의 세부장르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과 함께 주요 참여 예술인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심의의 특성상 공연예술의 ‘준비’ 과정에 초점을 두었으며, 각 장르별 과정의 특이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장르별 차이를 떠나 심의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와 대상에 대해 적잖은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있고, 이미 작품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그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개발의 주안점을 다시 검토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질문을 다시금 복기하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우수 선정자의 기획이 본 지원트랙이 지향하는 바를 모두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장르별 세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극 분야에서는 프리프로덕션과 프리-프리단계, 혹은 아예 동기유발의 단계까지 다양한 과정 중의 프로젝트를 만날수 있었습니다. 작품의 규모와 리서치의 정도를 살펴, 창작준비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있거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팀의 역량과 내용이 훌륭하더라도 선정하기 어려웠음을 밝힙니다. 연극분야 안에서는 연극성이 강한 작업을 지향하는 팀이 많았고, 뮤지컬과 음악극 그리고 다양한 공간의 실험, 주제의 탐구, 융복합 장르 등의 성격을 가진 작품들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장르간 협업의 경우, 서로의 문법을 익히는 과정이 곧 창작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프로젝트도 더러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밟기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보자면, 연극 분야가 아니더라도, 무용과 음악 장르에서 각각 드라마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원자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드라마’를 추구하는 제안이 월등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드라마가 선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정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어서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작업의 단계를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느린’ 속도의 창작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제작하고 완성하는 프로세스 보다는, 시간을 두고 리서치를 진행해나가면서 고려할 사안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상대적으로 주목하였음을 밝힙니다.

무용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지원자 수는 적었으나 장르 내적으로는 전통부터 컨템퍼러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험정신에서 창발된 기획안이 접수되어 향후 창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전통을 답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창작자가 자신의 관점과 해석을篤심 있게 밀고 나가는 작품, 동시대를 관통하는 의제를 자신의 철학으로 재해석해 인간과 세계를 사유하는 작품, 몸에 대한 치열한 탐구를 통해 움직임의 전형을 혁신하고자 하는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 작업들로 인해 향후 창작 토양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음악 분야에는 자기 장르의 고유성을 곳곳이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스타일을 창작하겠다는 지원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나, 관객의 흥미를 위해 너무 동떨어진 장르와의 합치를 시도하거나, 기존의 것을 비틀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하거나, 이론적인 아이디어가 훌륭하더라도 구체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경우, 부득이 제외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음악인들이 매우 훌륭한 공연 준비안을 내셨는데 모두 다 선정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공연기획의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본 것은 지원 신청된 프로젝트가 어떤 배경/맥락에서 시작되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밟아나갈 것인가가 논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이 지원사업의 경우 창작 ‘초연’이 아닌 ‘창작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의 과정에 창작자의 고민과 시도가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정 장르의 경우, 창작준비의 개념이 아직은 많이 낯설고, 과정을 견뎌내는 시간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원 트랙은, 긴 호흡으로 멀리 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고로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예술가에게 적합하며, 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작품의 고유한 의미와 재미가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심사에서는 실험적인 시도 만큼이나 자신의 예술적 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바탕이 된 작업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빠르게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함께 하게 된 예술가들께서는 그 과정을 차분히 밟아나가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3.10.

심의위원

정진새 (연출가, 극단 문 대표)
윤단우 (무용평론가)
구자범 (참음악 대표)
고주영 (공연예술 독립기획자)